

退溪와 栗谷의 人間關係研究**

金 裕 赫*

• 目 次 •

- | | |
|---------------------|------------------|
| I. 退溪와 栗谷은 어떠한 關係인가 | III. 對立說의 淵源과 訛傳 |
| II. 栗谷의 退溪觀 | IV. 先賢論을 펼 때의 자세 |

I. 退溪와 栗谷은 어떠한 關係인가

퇴계와 율곡은 한국에 있어서 손꼽히는 大性理學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학통 등을 중심으로하여 退栗兩人間의 關係를 필요 이상으로 발전시키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퇴계의 문하와 율곡의 문하들간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하들간의 논쟁이었다는 사실로 정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하들간의 논쟁을 퇴계와 율곡의 대립인양 시대마저 소급해서 혼동하게 되면 될수록 퇴계관의 굴절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退溪全書》와 《栗谷全書》을 토대로 하여 그 두분의 關係를 살펴보면 것처럼 존경과 애정을 두터이 나누면서 지내왔던 학자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퇴계는 1501년에 출생하여 1570년에 서거하였으며 율곡은 그보다 35년뒤인 1536년에 출생하여 퇴계서거 14년 이후인 1584년에 서거하였다. 즉 동시대를 함께 생존한 기간은 35년간이나

*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연구』 제2호(1988) 게재논문

된다. 그러나 율곡의 유년시절을 제외한다면 퇴계와의 왕래기간은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율곡은 17세 때에 어머님인 신사임당을 잃고 19세에 금강산에 입산하였다가 나와서 22세에 慮氏부인과 결혼하였다. 결혼 다음 해인 23세 때에 처음으로 陶山을 찾아 퇴계를 禮訪하였다.

퇴계와 율곡이 동시대를 산 것은 35년간이지만 율곡이 23세때에 처음으로 도산을 尋訪하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보면 그 두분의 왕래는 퇴계가 서거할 때까지 12년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율곡은 누구보다도 퇴계를 존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퇴계도 율곡을 몹시 아끼고 있었다. 그것은 앞의 주요일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¹⁾

퇴계와 율곡과의 사회적 관계는 5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제 1기는 율곡의 출생전인 퇴계의 청장년기로서 이는 율곡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퇴계에 의하여 성숙화된 학문의 내용이 율곡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점은 중시할 필요가 있다.

제 2기는 퇴계와 율곡이 서로 만나기 이전의 시기로서 이는 1536년부터 1557년까지의 22년간에 해당한다. 퇴계는 이미 中外로 명성과 학덕을 떨치는 巨儒로서 그의 위상이 뚜렷해지고 있었는데 하면, 율곡은 학문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해 갈 수 있는 초기단계에 들어선 때였다.

제 3기는 1558년에 율곡이 퇴계를 禮防한 때부터 퇴계가 서거한 1570년까지 12년간에 이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퇴계와 율곡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 성리학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시기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제 4기는 퇴계가 서거한 1570년부터 율곡이 서거하기 까지인 1584년에 걸친 14년 간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간중에 이기론이 더

1) 「퇴계전서」와 「율곡전서」 및 「鶴峰 金誠一문집」 등을 비교검토하여 抽出하였음.

욱 활발히 토론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 5기는 퇴계와 율곡이 모두 서거한 이후에 퇴계와 율곡간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펼쳐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하여야 할 시기는 제 3기 이후라고 말해두고 싶다. 왜냐하면 전기 주요일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퇴계와 율곡과

區分	時代	干支	西紀	年齡		主要日誌內容
				退溪	栗谷	
제 1 期	燕山君 7	辛酉	1501	1		· 퇴계출생.
	中宗 31	丙申	1536	36	1	· 율곡출생. · 퇴계는 이미 戶曹佐郎에 除受되어 있었음.
제 2 期	中宗 32	丁酉	1537	37	2	· 퇴계는 承議郎에 拜受되어 있었으나 12월에 박씨부인과 사별함.
	明宗 12	丁巳	1557	57	22	· 율곡은 여씨부인과 결혼함. · 퇴계는 前年에 禮安鄉約을 草하였으며 當年에는 陶山之南에 서당을 세울 수 있는 땅을 구함.
제 3 期	明宗 13	戊午	1558	58	23	· 율곡이 처음으로 退溪禮訪. · 敬者主一無適論問答.
	明宗 22	丁卯	1567	67	32	· 恭憲大王昇遐時 퇴계에 上書.
	宣祖 1	戊辰	1568	68	33	· 政事問答 위하여 退溪에 上書.
	宣祖 3	庚午	1570	70	35	· 율곡이 퇴계에 問安上書 (外祖母喪畢後) · 퇴계에 율곡이 問目上書. · 退溪先生訃至爲位哭之.

제 4 期	宣祖 5	壬申	1572	卒後	37	· 祭退溪李先生文~栗谷. · 金誠一과 더불어 退溪諡號 論議.
	宣祖 9	丙子	1576	卒後	41	· 請從 李滉 贈諡之請~栗谷.
	宣祖 11	戊寅	1578	卒後	43	· 김성일, 論李珣問題申救. · 김성일, 辭朝歸路에 李珣訪問 交談. · 朱子祠에 이퇴계와 함께 配享할 것을 提請,
제 5 期	光海君 4	壬戌	1622	卒後	卒後	· 栗谷之位를 東廡 文純公 李滉之下에 두게 함.
	顯宗 2	辛丑	1661	卒後	卒後	· 紫雲書院에 퇴계와 율곡을 함께 配享함.
	顯宗 9	戊申	1668	卒後	卒後	· 紹賢書院·竹林書院·雲田書院·道東書院 · 鳳岡書院·正源書院 등에 퇴계와 율곡을 함께 配享함

〈퇴계와 율곡에 관계된 주요일지〉

의 관계가 그 기간중에 가장 뜻있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제 3期는 퇴계와 율곡이 선후배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제지간과 다름없는 尊愛之情을 나누었던 서로의 입장이었다. 그것은 율곡이 퇴계를 대할 때에는 언제나 최대의 예의와 존경의 뜻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問候의 人事도 존중히 표현했었던 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리고 율곡은 퇴계와의 이기론담에 있어서 심도있는 토론도 서슴치 않았다. 퇴계도 율곡의 이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저하지도 않았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술토론은 심도있게 원리적인 접근논쟁이 있어야만 학문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리학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또한 이기론이 그만큼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은 퇴율관계에서 얻어진 성과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우리들 後學의 입장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퇴율간의 理氣論談은 어디까지나 학술토론이었을 뿐 인간관계의 대립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제 4기에 해당하는 퇴계서거후에 있어서 율곡의 태도에 의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제 4기는 퇴계가 이미 서거한 이후에 해당하는 시기이지만, 율곡은 퇴계서거후에도 변함없이 그에 대한 존경은 한결 같았다. 즉 퇴계가 서거하였다는 訃音에 접하자 통곡을 금하지 못하였든가, 暮祭祀때에 제문을 써서 올린 일을 비롯하여 퇴계에게 익호를 내릴 것을 왕에게 간청하였던 일 등은 그 모두가 퇴계에게 바친 율곡의 지성이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일이다.

퇴계서거후 行狀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정에서는 익호를 내릴 것을 꺼리고 있었지만 율곡은 퇴계의 학덕을 미루어 볼 때 행장의 작성유무는 문제시할 바 아니라는 것을 앞장 서서 奏請하였다. 그리고 율곡은 退門三傑中の 一人으로 알려진 鶴峰 金誠一²⁾과 남달리 자별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가며 지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퇴율간의 상호관계는 어디 하나 험잡을 곳 없는 尊愛 관계였다고 말해서 그릇됨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제 5기에 있어서 후인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는 書院配享 등을 보아도 퇴계와 율곡은 비교적 많은 서원에서 함께 배향되고 있다. 율곡이 서거(1584년)하여 38년이 지난 1622년에서부터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전국각처에 소재한 서원에서 퇴계와 율곡을 함께 배향하고 있으니 이는 퇴계와 율곡의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後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의 표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 퇴계와 율곡은 우리나라

2) 阿部吉雄, 「李退溪~その行動と思想」, 평론사, 1981, p.41.

성리학사의 쌍벽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호관계는 마치 자전차의 전륜과 후륜과도 같은 관계에 있었음을 능히 알 수 있다. 左右兩輪의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러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前後兩輪의 관계는 전철을 그대로 되밟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도 자전차는 양륜의 조화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바로 퇴계와 율곡의 상호관계는 인간적 측면에서는 準사제관계였다고 짐작되며 학문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II. 栗谷의 退溪觀

퇴계와 율곡의 인간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퇴계의 입장에서 율곡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율곡의 입장에서 퇴계를 여하히 보았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퇴계는 시대적으로나 연령적으로 先位者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학문에 있어서 선학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필자 나름대로 설정한 퇴계관계에 있어서의 제 3기와 제 4기를 중심으로 하여 율곡의 퇴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율곡의 퇴계관을 이루는 基底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學德면에서 크게 존경하는 입장에서 퇴계를 우러러 보았다. 그것은 필자의 견해로서는 6가지 면에서 실증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1558년(율곡 23세시)에 예안지방에 있는 도산서원으로 퇴계를 禮訪하였을 때의 일이다. 율곡이 성주로부터 강릉으로 가던 도중 도산을 歷訪하게 되자 詩 一律로써 만나뵙기 위한 뜻을 전하였다. 그때 율곡은 반나절 정도 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두분의 만남은 너무도 眞摯하여 2일간이나 계속 되었다.³⁾

3) 율곡이 퇴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올렸다. 溪分洙泗派, 峯秀武夷山. 活計經千卷, 生涯屋數間. 襟懷開霽月, 談笑止狂瀾. 小子求聞道, 非偷半日閒.

물론 그때의 대화내용은 의례적인 것도 많았겠지만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퇴계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敬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즉 主一無適은 敬의 요법이며, 酬酢萬變은 敬의 活法으로서 이를 사물에 응용하게 되면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이치를 찾아내어 모든 것에 관한 당연의 법칙을 알게 되는 바 그것은 마치 거울에 물건을 비추어보는 것과도 같다 하였다.⁴⁾

이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두 분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학문문답에 여념이 없었다.

퇴계도 율곡을 만나본 뒤 시로써 화답하면서 부연하기를 “後生可畏”라 하였으니 율곡을 보기를 보통 유생과는 달리 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로 퇴계의 화답시를 註記해둔다.⁵⁾ 시의 내용에서도 비쳐나고 있지만 퇴계는 율곡을 만나면서 “心神을 일깨울 수 있었다(公來披豁醒心神)”든가, “敬身을 제대로 못해온 것이 부끄럽다(堪愧年前闕敬身)”하는 표현으로써 겸허해 하였다.

율곡은 퇴계보다 무려 35세나 연하이다. 즉 58세의 老儒와 23세의 靑年儒士와의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퇴계는 자신의 居敬之道가 미흡했었다는 것을 서슴없이 토로하기도 하였는가 하면, “서로 힘써서 학문에 정진한다면 더욱 친해질 수 있다(努力功夫各自親)”는 이야기로 매듭지었으니 이는 학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나이의 高下 관계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퇴을 양인간의 관계는 존경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맺어졌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퇴계가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을 때의 일이거니와 율곡은 그의 사직을 적극 만류하는 의사를 펴기도 하였는데 그 주지는 시국이 퇴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율곡의 눈에 비친 퇴계의 영상은 문자 그대로

4) 「율곡전서」 제9권, 書1 참조.

主一無適 敬之要法 酬酢萬變 敬之活法 若於事物上 一一窮理而各知其當然之則 則臨時應接 如鏡照物.

5) 病我牢關不見春, 公來披豁醒心神. 始知名下無虛土, 堪愧年前闕敬身. 嘉穀莫容稊熟美, 遊塵不許鏡磨新. 過情詩語須刪去, 努力功夫各自親.

로 북두칠성과 같은 학덕겸비의 군자이었다.

퇴계의 《言行錄》 제 3권에서 보면 율곡은 퇴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퇴계선생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더니 만년에 이르러 더욱 학문을 좋아하여 벼슬하기를 꺼려하고 예안땅에 물러가 사시면서 학문에 정진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태산처럼 그리고 북두칠성처럼 우러러 보았다고 하였다.⁶⁾

율곡의 경우 이같은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퇴계에 대해서만은 泰山北斗라는 최상稱의 표현으로써 그의 경의를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보아 율곡의 퇴계관은 가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셋째는 1567년에 있었던 일로서 관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퇴계에게 留任을 적극 권고하였던 것이 바로 율곡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1567년 6월에 명종이 薨하고 世事는 어지러웠다. 더욱이 명종이 無後이기에 당시의 공론은 조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조정에 巨儒가 머물러 있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퇴계는 身病으로 인하여 고향으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율곡은 퇴계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國喪中인데다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겹쳐 있으므로 이를 살피드려야 할 선생께서 물러가시다니 안될 말입니다(幼主初服 時事多難 揆之分義 不可退去).

라고 하였다. 그때에 퇴계는 대답하기를

도리면에서는 비록 물러가서는 안될 줄 알지만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몸은 이미 病弱상태에 있고 능력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道理雖不可退 以吾觀之 不可不退 身既多病 才亦無能爲也).

6) 퇴계의 「言行錄」 권3, 출판편 참고.

珥曰 先生 自少志道 晚尤好學 不樂仕宦 退居于禮安 時人 仰之如泰山北斗.

라고 하였다. 율곡은 또 간청하여 말하기를

선생께서 經筵에 나가 계시면 그 자체가 크나큰 기여가 됩니다. 벼슬한다는 것은 남을 위함이지 어찌 자신을 위함이겠습니까(若先生在經席之上 則爲益甚大 夫仕者爲人 豈爲己乎).

라고 하였다. 이에 퇴계는

벼슬한다 함은 진실로 남을 위함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만약의 경우 그 이로움이 사람들에 미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몸 추단하느라 부심하게 된다면 이같은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될 것이다.(任者 固爲人 若利不及人 而患切於身 則不可爲也).

라고 하였다. 그러나 율곡은 퇴계에게 거듭 그 퇴거의사를 철회케 하기 위하여 또 말하기를

선생께서 조정에 계시면서 가령 공헌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임금님의 마음이 든든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政事를 이끌어가게 될 것인 바, 이것이 곧 이로움을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일입니다(先生在朝 假使 無所獻爲 而上心 倚重人情悅 賴此亦利及於人也).

라고 끈질기게 권유하였다.

퇴계는 마침내 귀향하고 말았지만 율곡은 그 뒤에도 서면을 통하여 조정에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다(後又移書勸留).⁷⁾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율곡이 퇴계의 퇴거를 적극 만류했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 퇴계의 인간됨을 존경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학덕을 겸비하고 있기에 난국을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中樞의인 중신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러나온 우국충정의 표현인 것이다. 존경심과 애국심의 결집점을 율곡의 당시

7) 『栗谷全書』권 33 참고.

입장에서는 퇴계로부터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 어찌 두 분 사이에 대립과 갈등의 여지가 있었겠는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넷째는 퇴계가 서거하였을 때 吊詩(<哭退溪先生>)⁸⁾로써 哀悼의 뜻을 표하였던 율곡의 태도는 아주 진지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퇴계가 서거한 것은 1570년 12월 8일이었다. 율곡은 그 당시 35세로서 淸州牧使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으며 그곳 任地에서 서원향약을 펴내어 化民成俗에 온갖 정념을 기울이고 있었을 때이었다.

율곡은 평소에 존경하여 왔고 또한 조정을 바로 세워가는데 있어서 퇴계에 앞설 棟樑之材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토록 믿어왔었던 퇴계가 서거하였으니 율곡에게 있어서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悲報가 아닐 수 없었다.

율곡의 吊詩에도 나타나 있거니와 율곡은 퇴계를 “良玉精金”에 비유하였으며 또한 그의 서거를 “虎逝龍亡”이라 표현하여 아픈 마음을 달래지 못했었던 것을 미루어 생각할 수도 있다.⁹⁾

다섯째 율곡이 吊詩에 이어 大喪때(1572年)에 써서 올린 제문에서 보면 율곡처럼 퇴계를 깊고 넓게 그려낸 사람도 드물 것으로 여겨진다. 즉,

① 퇴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천지간의 정기가 퇴계에게 모였다고 하였다(繫公之生間氣所鐘).

② 퇴계의 모습은 옥처럼 우아하고 따스함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溫然如玉有粹其容).

③ 퇴계의 뜻하는 바는 밝은 해를 꿰뚫을만 하였고 그의 행실은 가을 물처럼 고결하였다고 한다(志貫皦日行潔秋水).

④ 퇴계는 선을 즐겨찾고 의로움을 좋아함에 있어서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樂善好義無間人已).

8) 「栗谷全書」 권2 詩(下)편 참고.

9) 栗谷의 吊詩(哭退溪先生), 良玉精金稟氣純, 眞源分派自關閩. 民希上下同流澤, 迹作山林獨善身. 虎逝龍亡人事變, 瀾回路關簡編新. 南天渺渺幽明隔, 淚盡腸摧西海濱.

⑤ 퇴계는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하학적인 것에 더 힘쓰며 깊이 생각하고 精到 높은 연구를 거듭하였다고 한다(俛首下學妙思精研).

⑥ 퇴계는 현묘한 지경까지 깊이 추구하여 실끝과 터럭의 毛空까지도 분별하리만큼 洞察力이 높았다고 말하고 있다(縷析臺分洞見幽玄).

뿐만 아니라 율곡은 祭文 말미에 가서

⑦ 혼자 생각하기를 책가방 메고 퇴계선생을 찾아가 학업을 마치고자 하였더니(自擬負笈庶幾卒業)

⑧ 하늘은 무심하게도 붙들어주지 아니하고 哲人을 갑자기 빼앗아 갔도다(天不憚遺哲人遽萎)라고 아쉬움의 뜻으로써 제문을 끝맺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율곡은 이미 퇴계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 두 분사이에는 대립이니 갈등이니 하는 낱말 등은 이미 용인될 수 없었다는 것을 더욱 확연히 해주고 있다.

여섯째 율곡의 퇴계관은 퇴계에게 익호를 내릴 것을 간청하였다는 사실로써 더욱 명백해 진다. 익호는 서거후에 上王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익호가 주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행장이 저술되어 올려져야 한다. 퇴계의 행장은 쉽게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율곡은 퇴계가 서거하던 당년에 上王에게 주청하여 퇴계에게 익호를 내릴 것을 종용하였다. 그 때에 선조는 행장이 없다는 이유로 賜諡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행장을 써 올리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율곡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옛날 주자의 高名제자인 黃榦의 행장은 무려 20년 뒤에 작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퇴계 문인들이 어찌 그 行狀을 쉽게 써낼 수 있겠습니까. 퇴계의 行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듯이 자명한데 行狀의 유무가 문제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비로서 그만큼 이름을 드날린 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一平生동안 義理之學에 沒頭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언론과 風旨, 그리고 저술에 있어서는 비록 옛 저명 학자들도 그에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一生沈潛義理之學 言論風旨 筆之於書者 雖古昔名儒之言 亦不是過).

퇴계에 대한 익호를 내림에 있어서 한 두해 늦어진다 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도리어 의심을 느끼게 될 지 모릅니다.

전하! 어진이를 좋아한다는 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해됨이 어찌 近日보다 앞을리 있겠습니까(無好賢之誠則 其害 豈淺乎且近日).¹⁰⁾

그때 金誠一도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다. 율곡의 주청을 이어받아 金誠一도 “퇴계의 학문은 어찌 言論과 風旨뿐이겠습니까”하고 거들었다.¹¹⁾

율곡의 그같은 간청에 의하여 선조는 다음해인 1571년에 행장없이 먼저 퇴계에게 文純公이라고 賜諡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주요사실들을 토대로하여 살펴보았을 때 율곡처럼 퇴계를 존경하였던 학자도 드물었지 않았는가 느껴진다. 그뿐만 아니라 퇴계도 율곡에게 愛弟子 이상으로 정을 쏟으면서 거리낌없는 忠訓을 주기도 하였다.

율곡이 퇴계를 방문하고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한 가르침을 주심사(栗谷始請益於退溪先生)”하고 요청하였다.

그때 퇴계는 다음과 같이 뜻깊은 訓言을 들려주었다.

첫째는 마음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일은 속임을 범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特心貴在不欺),

둘째는 朝廷에 나가 있을 때에는 너무 일을 만들어서 하기를 좋아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立朝當戒喜事).¹²⁾

라고 하였다.

서로 心氣가 통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을 서로 진심으로부터 아끼는 처지가 아니라면 좀처럼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다.

10) 「栗谷全書」권 29, 〈經筵日記〉참고.

11) 「鶴峰 金誠一文集」중 〈年譜〉참고.

12) 「退溪全書」, 「言行錄」(1) 〈教人篇〉(具鳳齡述) 참고.

그러나 두 분은 그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으니 이는 일부 후학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대립관계가 전혀 무근함을 이야기해 주는 보다 확실한 證左가 아닐 수 없다.

Ⅲ. 對立說의 연원과 와전

퇴계와 율곡은 다른 인간관계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서로가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가 마치 불편한 관계로서 대립되어 있었다는 듯이 전해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후학들 가운데 지나치게 두 분의 학문내용을 비교해 보려는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학문이라는 것은 토론을 그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토론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론에 접근하기 위한 비판을 수반한다. 비판을 採長補短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비판자도 즐겁고 피비판자도 보람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을 대립 또는 반대하기 위한 개념으로 수용하게 되면 상호간의 갈등문제가 생성한다.

온갖 기록을 토대로하여 살펴보면 퇴윽간에 있어서 특히 율곡에 있어서의 퇴계학에 대한 이해는 대립개념에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하여 보다 情微함을 추구하기 위한 研鑽의 노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 나름대로 살펴보았을 때 퇴윽 간에 있어서의 대립설의 연원과 그에 관한 와전이 무엇이었던가는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서 밝혀갈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사단론¹³⁾에 관한 이견을 논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계의 경우 “사단은 理에서 나오는 것이고, 칠정은 氣에서 나오는 것(四端 發於理 七情 發於氣)”이라고 하였다.

13) 惻隱之心 人之端 辭讓之心 禮之端 是非之心 義之端 羞惡之心 智之端.

이에 반하여 奇明彦은 말하기를 “사단칠정은 원래 두 가지가 아니고 칠정중에서 理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단(四端七情 元非二情 七情中之發於理者 爲四端耳)”이라고 한다.

퇴계론과 奇明彦論에 있어서 만 마디의 말을 서로 교환하였지만 합일점을 찾아내지 못했다(往復萬餘言 終不相合)고 하면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奇明彦의 논리는 나의 뜻과도 맞는다(明彦之論 正合我意), 일반적으로 보건대 性 가운데 仁義禮智信이 있고, 情 가운데 喜怒哀樂愛惡欲이 들어 있다. 五常 이외에 또 다른 性이 있을 수 없고(五常之外 無他性), 七情 이외에 또 다른 情이 있을 수 없다(七情之外 無他情). 七情가운데 人欲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천리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四端인 것이다.¹⁴⁾

라고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단론은 어디까지나 토론일지언정 부정적인 논박은 아니다. 그러나 후학을 가운데에는 그대는 저편이고 나는 이편이다 라는 계파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왈가왈부하면서 극단논리를 펴는 가운데 퇴율 두 분은 자신도 모르는 새 대립관계에 있었던 양 와전되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는 이기론에 관한 이견을 토론이상의 개념으로 와전시켜 온 것이 바로 퇴율관계의 상호대립인 양 오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퇴계선생이 서거한 2년 뒤인 1572년에 율곡은 牛溪 成渾 선생과 더불어 理氣四端七情과 人心 및 道心에 관하여 토론을 편 때가 있었다.

율곡은 말하기를,

雲峰胡氏는 性이 피어나서 情이 된다(性發爲情). 때문에 처음에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其初無有不善). 그리고 心이 피어나서 意가 되는 것

14) 『栗谷全書』권 14 참고.

이므로 善과 不善이 있게 마련이다(心發爲意 便有善不善). 그런데 退溪는 말하기를, 사단이란 理가 피어나서야 氣가 따르게 되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이란 氣가 피어나서야 理가 氣를 타고 나타난다(氣發而理乘之)고 하였다.

그렇다면 雲峰胡氏는 情과 意가 두 가닥으로 존재함을 의미하고(以情意爲二岐) 퇴계는 理와 氣가 함께 피어나는 것이라(以理氣爲互發)는 뜻인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心之體는 性이요, 心之用은 情이다. 그러므로 性情 이외에 다시 다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性情之外 更無他心).

라고 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율곡은 雲峰胡氏의 견해와 퇴계의 견해를 다 뒤로 돌려놓고 朱文公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소견을 명백히 하였다.¹⁵⁾

朱文公은 마음이 고요롭게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이를 性이라 하며(心之寂然不動者謂之性), 마음이 무엇인가를 느껴서 통하게 될 때 이를 가리켜 情이라 하고(心之感而遂通者 謂之情), 마음이 어떤 느낌에 따라 생각을 펴나갈 때 이를 가리켜 意라고 한다(心之所感而絀釋思量者 謂之意).

이와 같이 이해하였을 때 心과 性은 과연 두 가지로 나뉘어 쓰일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情과 意도 과연 두 가지의 가닥으로 나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心性 果有二用 而情意 果有二岐乎).

라는 주문공의 이야기를 원용해서 설명을 부연하였다.¹⁶⁾

뿐만 아니라 율곡은

무릇 情이 피어남에 있어서 피어나는 그것은 氣이며 피어나게끔 하는 것은 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氣가 아니면 피어날 수 없고 理가 아니면 피어나게끔 되지 않는다.(凡情之發也 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非氣

15) 「栗谷全書」 권 33 雜錄 참고.

16) 위의 책 참고.

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理와 氣는 混融되어 있어서 서로 분이될 수 없는바(理氣混融 元不相離), 만약의 경우 離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動과 靜의 端이 다를 수 있고 음과 양에 있어서도 시종과 선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若有離合 則動靜有端 陰陽有始矣).

따라서 太極과 陰陽은 함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理와 氣가 함께 피어난다는 理氣互發論은 모순이 아니겠는가(太極陰陽 不能互動則謂氣互發者 豈不謬哉).

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⁷⁾

그러면서도 율곡은 牛溪에게 주자의 人心道心論과 퇴계의 그것은 서로 뜻이 상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사단칠정론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퇴계론과 율곡론은 상호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을 지향하기 위한 학문적인 토론이었음을 능히 알 수 있다.

셋째는 율곡과 퇴계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퇴율 두 분이 대립돼 왔었던 것인양 오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퇴계는 선조로부터 의정부의 右贊成으로 入朝할 것을 권유받고서도 이를 固辭하였다. 그때 上王은 퇴계에게 卿이 추천할 만한 인제가 있는가(朝士 何人可倚信 何人爲道學乎)고 물었다. 退溪는 李浚慶과 奇大升을 추천하였다.(滉對曰 李浚慶 可託大事 願信任勿疑 奇大升 學問之士也 但未造精微耳).

퇴율 간의 오해는 여기에서도 생겨났다. 이때 율곡은 그 두 사람의 천거사실에 대하여 맹렬히 비판하였다. 즉 퇴계는 碩德儒宗인데 主上의 求賢之際에 있어서 겨우 李浚慶과 奇大升을 천거하였을 뿐이니 “퇴계로

17) 위의 책 참고.

서 이 정도라면 知人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겠노라(以文純之賢 所薦如此 知人 豈不難矣哉)”고 하였다.

율곡의 李浚慶觀은 사람이 교만스럽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며 다만 가까운 규칙만을 지키려 할 뿐 유자들의 중의를 도리어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奇大升은 士類를 경시하며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은 좋아하니(輕視士類 異己者惡之 同己者悅之) 그는 국정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고 냉엄히 비판하였다(其執拗之病 將以誤國矣).

뿐만 아니라 李浚慶은 영상으로 있으면서도 旱災에 대한 마련이 없어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旱甚 別無適用之策 是時 凶荒大甚 民生失所 國勢岌岌 而大臣因循 無所建白 士類之稍 欲有爲者 則輒斥以喜事 士氣甚挫)는 정책론적인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

그밖에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程子の 格物之說과 朱子の 存養省察之訓은 그 출처가 분명한데 비하여 퇴계의 聖學十圖는 그 출처가 의문스럽다(聖學十圖 可疑處)¹⁸⁾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일들을 놓고 퇴계와 율곡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과대화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까지도 準師弟의이라기 보다는 대립적인 관계였다고 잘못 전해지고 있다.

퇴계학 이론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하고 또한 의문시되는 점에 관하여 과감히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율곡이 있었기에 퇴계학은 오늘에 있어서 더욱 빛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문하생들은 사제적 윤리관계등으로 말미암아 냉정한 입장에서의 토론이 불가능하였고 비판은 焉敢生心이었을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퇴계와 율곡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이론 전개과정은 서로의 학문적인 심도화의 가치추구를 위하여 필요했었던 세기적인 대토론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론이 있었기에 오늘날 퇴

18) 『栗谷全書』권 33 〈附錄〉참고

계학문이라는 금자답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IV. 先賢論을 펼 때의 자세

후학들의 입장에서 선현을 알아보고자 할 때 유념하여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즉 관념적인 면에서 가치인식의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我執에 사로잡힐 우려가 언제나 뒤따른다.

시대사회적인 문화는 사회변동과 더불어 발전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대사회는 후대사회보다는 옛스럽고 또한 현대적인 변화요인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원형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같은 고려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후학들은 언제나 자신의 立志와 立時에서 지난날을 관찰하여 들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날의 현상을 평가하려 들게 된다. 여기에서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고 현대인적인 편견에 빠져들게 된다.

둘째는 후학의 입장은 누구의 경우를 막론하고 선행기록을 토대로하여 선현들의 생활상을 읽게 마련이다. 인간의 일생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부분이 기록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수백배 이상이나 된다.

후학의 입장에서 선현의 기록을 바탕으로하여 살펴본다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의 片面만을 볼 수 있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후학의 입장에서는 편면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편면은 추정하게 될 뿐이다.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편면이고 추측해서 생각하여야 할 부분도 편면에 지나지 않으니 편면견은 편면설 밖에 부연해 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선현을 연구하고자 할 때일수록 주도면밀하게 살펴 본다는 노력과 어느 편면만을 보고 속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는 후학의 입장에서 선현의 행적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縱系列的인 시각에서 접근할 뿐이지 연구대상인물의 橫系列的인 상황까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일례를 들어서 퇴계와 율곡 두 분의 사회관계를 살펴 보아도 남겨진 기록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앞에서 두 분간의 관계를 5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제 4기는 12년 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12년 간에 두 분이 서로 자리를 함께 한 적은 數三次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기록이외의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함이다.

그 數三次에 걸친 두 분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록으로 남겨진 일부분의 사실만을 가지고 퇴유크간은 대립관계였다느니 하는 말을 가볍게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일일까.

당대를 함께 살았던 巨儒들간에는 기록상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그같은 경우의 인물들을 동시대인이면서도 접촉이 없었다고 후학의 입장에서 단정해도 될 일인가.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관이 편견을 낳게 하고 추정이 와전을 낳게 하는 그르침을 범하지 않도록 역사앞에 겸허하고 기록앞에서 자만하지 않는 선현관을 지닐 줄 알아야만 선현연구의 實을 더욱 크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